

로봇, 붓다가 되다

서울 소마미술관에서 3월 14일까지 '아이로봇, iRobot'展

단골 만화주인공인 '로봇'이 스크린을 나와 인간의 생활에 점차 참여 영역을 넓히고 있다. 가수 김장훈은 공연에서 로봇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중에게 '로봇'이란 존재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심어줬는가 하면, 2004년에 개봉한 알렉스 프루아스 감독의 영화 '아이 로봇'은 로봇을 인간의 지배자로 표현하며, 과학기술발전이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로봇은 사람들의 상상에서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로봇이 예술과 만나는 행사가 있어 눈길을 끈다. 소마미술관(관장 이성순)은 로봇을 소재로 인간의 미래를 꿈꾸는 '아이로봇, iRobot'전을 개최했다.

백남준, 왕지원, 낸시랭, 백종기 등 16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에서는 로봇을 주제로 한 설치작품 60여 점과 로봇유물 33점 등 모두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구성은 로봇의 역사, 인간이 꿈꾸는 로봇, 로봇이 꿈꾸는 인간, 인간과 로봇의 결합 등을 주제로 로봇을 통해 예술과 과학의 만남을 소개한다. 또한 인간의 상상력이 현대사회의 심리상태와 얽혀 로봇을 어떻게 풀어냈는지도 살펴볼 수 있게 기획했다.

특히 왕지원(30) 작가는 미래의 로봇이 종교마저 갖게 될 것이라는 발칙한 상상력을 '붓다-Z13'이라는 작품을 통해 보여준다.

여준다.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인도네시아의 대표 불교 유적인 '보로부두르'(Borobudur Temple Compounds)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Angkor Wat) 사원처럼, 작가는 플라스틱 모형의 인물상을 설치해 보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플라스틱 인물상은 '미래의 인간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발상에서 출발해 '결국 인간은 사이보그(cyborg, 생물과 기계장치의 결합체)의 존재가 될 것'임을 작품을 통해 말하고 있다. 왕지원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사이보그 기술을 통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현재의 인간이 아닌 유한한 육체를 초월한 그 무엇인가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결국 그 사이보그는 인간의 몸과 사고를 닮는데서 그치지 않고 종교마저 갖는 사이보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작품 '붓다-Z13'은 이런 상상력을 바탕으로 쇠가모니 형상을 빌린 사이보그로 표현했다. 이런 사이보그 형상의 표현은 왕 작가만의 과거와 미래의 인간 실존에 대한 진지한 물음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 비디오아트의 거장 백남준과 구보라 시계고 등의 숨결을 감상하며, 미래의 한국 현대미술에 중추적 역할을 하기 될 젊은 작가들의 독특한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

인간의 모습을 띤면서도 인간의 콤플렉스를 뛰어넘은 로봇을 16명의 작가가 저마다의 색깔로 표현해낸 관객의 무한한 상상력을 이

끌어낸다. 명지대 백성현 교수는 이번 '아이로봇, iRobot'전에 대해 "상상력은 모든 예술과 과학의 원천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예술과 과학은 빠르게 교류

하게 된다"며 "앞으로 로봇에게 예술은 얼마, 과학은 아예 같은 존재로 인류와 공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술관 책임 큐레이터인 박용정씨는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로봇들이 과연 기계적 인간인가, 아닌 인간적 기계인가를 굳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듯 싶다"며 "작가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로봇들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상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1세기 새로운 키워드로 앞으로 우리의 도반이 될지 모 모르는 '로봇', 우리 앞에 다가오는 현실을 '아이로봇, iRobot'전을 통해 마음껏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자. 전시는 서울시 방이동 소마미술관 전관에서 3월 14일까지 열린다. (02)425-1077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왕지원 작가는 '붓다-Z13' 작품을 통해 쇠가모니 형상을 한 사이보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윤홍길 이견청 김월준 임현영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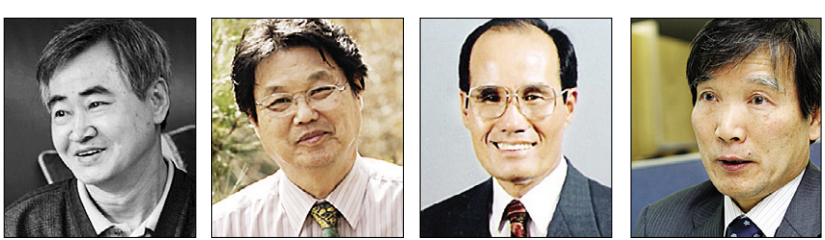
현대불교문인협·'불교문예' 제15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 선정

윤홍길 작가(소설부문) 이견청 시인(시 부문) 김월준 시인(시조부문) 임현영 평론가(평론 부문)가 제15회 현대불교문학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불교문인협회와 계간 <불교문예>는 최근 "제15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로 소설 부문에 윤홍길, 시 부문 이견청, 시조 부문 김월준, 평론 부문 임현영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수상작은 윤홍길의 '소리란 가는 길', 이견청의 '움직이는 산' 외 4편, 김월준 '김에게 묻다' 외 4편, 임현영 '법정 수필에 나타난 생태적 상상력'이다.

이번 현대불교문학상 심사는 이근배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조계종 문화부장 효탄 스님, 김재홍(시조시인, 前 경기대교수), 오세영(시인, 前 서울대교수), 김재홍(문학평론가, 경희대 교수), 권영민(문학평론가, 서울대교수), 최동호(문학평론가, 前



고려대학원장), 장영우(문학평론가, 동국대 교수), 홍성란(시조시인, 성균대 강사), 박수원(시인, 현대불교문인협회장), 문혜관(시인, 불교문학 포교원장), 공광구(시인, 불교문예 편집주간)가 맡았다.

1996년 첫 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내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은 5월 1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데드마스크' 백남준을 만나자

봉은사 백남준 4주기 추모전 8일까지

불교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작품 활동을 두루 해온 세계적인 비디오아티스트 故 백남준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봉은사주지 명진스승 故 백남준의 4주기 추모제를 맞아 고인의 뜻과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했다. 이번 추모제 기념 전시에는 '백남준의 데드 마스크'(paik nam jun death mask)'와 '백남준 49재 퍼포먼스 피아노' 작품을 선보인다.

'백남준의 데드 마스크'는 1994년 뉴욕에서 고인의 친구인 하영진이 조각한 작품으로 백남준의 실물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띠고 있는 작품이다. 하영진은 백남준과 함께 스톤킹 아트센터의 아티스트, 뉴욕과 파리 갤러리에서 다수의 작품을 함께 작업했다.

'백남준 49재 퍼포먼스 피아노'는 2006년 3월 18일 백남준 선생 49재 및 기념 퍼포먼스에서 수천 명이 함께 했던 작

품이다. 이 작품은 백남준 스튜디오에서 보관 중이던 것을 백남준의 조카인 켄 백 하쿠다가 4주기 추모제를 맞아 봉은사에 기증했다.

이와 관련해 봉은사는 1월 29일 고인이 된 백남준 선생 4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제 행사는 4주기 기일에 맞춰 불교식 천도재와 추모 이벤트로 진행됐고, 유족인 켄 백 하쿠다씨가 추모 이벤트를 통해 바이올린 퍼포먼스와 추모 연주를 선보였다.

봉은사는 2007년 4월 20일 백남준의 법적 대리인 켄 백 하쿠다 측과 '유해 안치 약정서'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매년 백남준의 추모제를 진행해 왔다.

평생을 동양과 서양, 과학과 예술을 조우하며 작품 활동에 일생을 바친 백남준 선생. 그의 숭고한 뜻과 정신이 깃든 작품을 통해 그 속에 녹아 있는 예술관과 불교를 느껴보자. 전시는 2월 8일까지 봉은사 법당루.

이은정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3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곡, 신주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2월 25일까지
- ◆ 개강일시 : 2010년 2월 26일 매주 (금) 오후 5시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중과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어렵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사찰 연등 및 전선 (범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 ▶ 범당용, 외곽용
- ▶ 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 ▶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 ▶ 종류: 3W, 5W, 10W
- ▶ 특 할라멘트로 빛이 윤택해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충족, 방생, 탐들이 행사용
경사초롱 및 초롱 길이대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